



명절날은 뭐니뭐니해도 한복을 입는 게 제격이다. 한복 디자이너 오점희씨 가족이 설날을 맞아 곱게 설빔을 차려 입고 포즈를 취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명절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한복이다. 평상시에는 번거로워 입지 못했다면 설 명절만이라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부모님께 새해 인사

를 드려보자. 예지한복 오점희(61)씨의 도움말로 올 유행 한복 스타일과 입는법, 보관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실 명질 한복 어떻게 입을까

‘황진이’처럼 화사하게

▲화사한 한복 유행

여성 한복의 경우 출연 배우들이 멋진 한복을 입었던 드라마 ‘황진이’ 등이 인기를 모으면서 화려하고 대담한 색깔들의 옷이 유행이다. “화려하게 예쁜 한복을 입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너무 튀는 게 아닌가 싶어 선택 입지 못하다가 드라마 등을 본 후 자신감을 얻은 것.

한복 상의의 경우 동정은 넓고 저고리 배개는 좁아지는 추세다. 또 옷고름은 짧아지고 저고리를 꼭 맞게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마폭은 넓어졌다. 짧은 여성들의 경우 연두저고리에 붉은 계열의 치마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남자 상의의 경우 파스텔 계열이 인기가 높다. 바지는 아이보리 등 연한색이 유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진한 색상을 많이 입는 추세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파스텔톤과 색동 등으로 화사한 분위기가 나는 한복을 입히는 게 좋다.

여성의 경우 두루마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남성은 긴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어야 제대로 된 정장차림이다.

▲한복 입는 법

한복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맵시는 옷 뿐 아니라 화장, 헤어 그리고 다소곳한 몸가짐까지 갖춰질 때 만들어진다.

화려하고 대담한 색깔 유행

속치마·버선 제대로 갖춰야

다소곳한 몸가짐 자세 중요



여성의 경우 조금 번거롭더라도 속치마, 속치마, 버선까지 제대로 갖춰 입는 게 중요하다. 치마를 입을 때는 걸자락이 왼쪽으로 오도록 신경써야 하며 속치마는 걸치마보다 2~3cm 짧은 게 좋다.

한복 입는 법 중 가장 까다로운 게 옷고름 매기다. 긴고름이 아래로, 짧은 고름은 위로 가도록 잡은 후 위의 짧은 고름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잡아싸 돌려감는다. 돌려감은 짧은 고름 사이로 긴 고름을 넣어 고름 만든 후 팽팽하게 잡아당겨 정리하면 된다.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 다소곳하게 앞으로 두손을 모은 자세가 돋보인다.

남성들의 경우 바지 허리가 풀리지 않도록 잘 동여매야 한다. 남성한복에서 가장 어려운 건 대넵매기.

먼저 대넵이 안쪽 복사뼈에 위치하도록 놓고 발등 부분의 옷을 잡아당긴다. 잡아당긴 옷을 그대로 잡고 발 바깥 방향으로 끝 부분이 위치하도록 돌려감는다. 대넵끈을 바깥방향에서 안쪽으로 교차시킨 뒤 끈을 복사뼈 방향으로 돌린 후 매듭을 지으면 된다.

▲한복 보관법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았거나 흠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탈탈 털어서 한지 상자에 보관하며 된다. 남자 저고리는 양소매를 포개 뒤 고름을 올려 잡고 아래에서 3분의 2쯤 소매 위로 것이 접히지않게 접어 올린다.

여자 저고리는 고름을 접어 포개 후 양소매를 진동선을 꺾어 접는다.

겨드랑이에 땀이 났거나, 음식물이 묻었다면 꼭 드라이클리닝 전문세탁소에 맡긴 후 상자에 넣어 보관하면 된다.



(사진제공: 돌살나이)

■진통 고집하기 싫다면

활동 편한 생활한복

생활한복은 아쉽게도 예전에 비해 인기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난립했던 브랜드 역시 많이 사라졌고 현재 광주에는 돌살나이, 탈탈이 등 몇개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에는 생활한복을 ‘명절용’으로 따로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한복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일반 한복이나 양장 정장에 비해 진동이 넓어 활동이 편리하게 장점이 다.

큰 부담 없는 가격도 장점이다. 여성 처림 옷의 경우 20만원대, 남성의 경우 23만원대 어린이옷은 1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고객을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도 다양해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한복 브랜드인 돌살나이 예술품 거리점 손영희 대표는 “활동하기 편하고 일반 정장에 비해 가격대도 중저가라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복 어울리는 화장·헤어스타일

한복을 입을 때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써야 한다. 화장의 포인트는 평상시 화장보다 피부 화장에 중점을 두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컬러로 곱고 단아하게 표현하는 것. (주)아모레 퍼시픽 미용교육 팀 임희진씨의 도움말로 한복에 어울리는 화장과 머리 모양에 대해 알아본다.

▲피부 표현

평상복보다 체도가 높은 의상에는 투명하고 맑은 피부색과 한복의 우아함을 살리는 블러셔가 포인트다. 스킨케어를 한 후 피부톤을 고려해 메이크업베이스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

특히 칙칙해 지기 쉬운 눈밑이나 턱부위

에는 하이라이트 제품을 따로 써주면 오랫동안 화사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30~40대의 경우는 파운데이션만으로 깨끗하고 균일한 피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사용한다. 목에 바를 때는 동정에 묻지 않도록 티슈를 사용해 동정을 감싸주고 브러시를 사용하면 쉽게 발라진다.

▲눈화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눈썹을 살려 그려주는 데 눈썹 끝을 약간 동글게 최대한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좋다. 아이섀도우의 색상 선택은 한복의 전체적인 색상과 어울리는 계열을 선택하면 좋다. 단 너무 진하거



나 화려한 컬러는 피해야 한다. 탁하지 않은 파스텔 컬러에 미세한 펄이 든 제품을 선택해 부드러운 느낌으로 눈에 색감을 주는 정도로만 표현한다.

섀도우로는 핑크만 주고 아이라인을 깨

눈·입술은 동일 색 톤...머리는 깔끔하게

끗하게 그려 또렷한 눈매를 만들고 마스크라로 속눈썹을 강조하여 눈에 깊이를 더해준다.

▲입술 화장

한 듯 안 한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하고 깨끗한 입술을 표현하고 싶다면 색조 화장 전에 립밤을 미리 발라두어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 준 뒤 입술 화장을 들어간다.

입술색과 가장 유사한 컬러의 립라이너 펜슬을 이용해 입술 안쪽까지 발라주고 립 브러시로 입술중앙까지 그라데이션한 뒤 한복과 잘 어울리는 계열의 립글로스를 입술 중앙에 발라 그라데이션 해준다.

▲헤어스타일

한복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깔끔해야 한다.

머리가 길다면 업스타일로 올려주어 목선이 드러나게 해준다. 한복 고유의 특이한 선이 살아나기 때문에 한층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다. 커트 머리카나 단발 머리라면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겨주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잔머리가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 준다.

어중간한 길이의 머리는 뒤로 묶어준 후 헤어 피스를 달아 지지분한 머리 끝을 숨겨주고 업 스타일로 연출해주도록 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unchang' (순창)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2007년 설 명절에는 순창의 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and illustrations of children in Hanbok. The banner also includes the Suncha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